

4 뉴스

챗GTP 가이드라인 마련 지난달 28일 메일로 공개

황인찬 기자 philip0503@khu.ac.kr

학사지원팀과 교수학습개발원이 ‘ChatGPT 활용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개강을 맞아 급증할 ChatGPT 사용에 최소한의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에는 ▲ChatGPT 소개 ▲교수자용 지침 ▲학습자용 지침 ▲ChatGPT 사용에 대한 명예 규율 서약양식이 포함됐다. 교수자용 지침에는 ▲자율적 활용기준 결정 ▲강의 계획서 명시 ▲허용 혹은 금지할 경우 상세지침 등이 담겼다. 학습자용 지침은 교수자가 제시한 지침을 바르게 숙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ChatGPT 활용목적 ▲ChatGPT 활용 시 주의사항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ChatGPT는 대표적인 생성형AI로 인공지능경망을 통해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1월 Open AI사가 인간과 비슷한 문장력을 구사하는 GPT-3.5를 공개하며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ChatGPT는 흔히 양날의 검이라 불린다. 이를 이용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고 자연어를 인간과 유사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반면 데이터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정보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저작권 문제가 일기도

한다.

대학가에서도 ChatGPT 사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관식 평가가 많은 대학의 특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연세대학교 교양 과목 작문 수업에서 담당 교수가 ChatGPT 대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수강생의 작문 과제를 무효 처리한 사례도 있었다. 반면 일부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ChatGPT의 장점을 이용한 교수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관련 지침을 정리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우리학교도 ChatGPT 활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지난 달 28일 웹메일을 통해 우리학교 구성원에 배포됐다.

주요 대학들은 지난 1학기를 시작으로 생성형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지난 3월 고려대학교(고려대)는 국내 최초로 ChatGPT



대학가에서도 ChatGPT 사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연스플래쉬)

활용 지침을 마련했다. 고려대를 시작으로 ▲연세대▲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국민대 ▲부산대 등의 대학들이 생성형AI 활용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국민대는 생성형AI 활용기준을 교수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반면 중앙대학교와 같이 3가지 옵션(▲생성형 AI 사용금지 ▲교수자의 사전 승인 또는 출처 표기

후 생성형 AI 사용 가능 ▲자유롭게 생성형 AI 사용 가능)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강의 계획서에 명시하도록 권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학사지원팀은 “1학기 때는 ChatGPT 활용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없었다”며 “윤리 기준을 지키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향후 개정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배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향후 계획에 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지침을 참고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학습개발원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며 “강의별 특색에 따라 교수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예규율 서약은 교원과 학생의 생성형AI 사용에 앞선 윤리 의식 제고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캠 제2기숙사 시설 정비 시작

정예은 기자 yegold@khu.ac.kr

【국제】제2기숙사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한 비품 교체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제2기숙사 일부 호실의 매트리스 교체 작업이 진행됐다.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남자동 11~13층(324개) ▲여자동 9~16층(216개)의 매트리스를 우선 교체한 상황이다.

의자 교체 작업은 업체의 생산 일정으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지난 23일에는 남자동 8~13층(648개)의 의자가 먼저 교체됐다. 10월 4일부터 6일까지는 ▲남자동 2~7층 ▲여자동 전 층(총 1532개)의 의자가 교체될 예정이다. 신규 의자는 2단계에 걸친 입사생 의견수렴을 통해 오염 관리가 수월하고 여러 면에서 보다 안전한 제품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제2기숙사 건물은 완공 16년을 맞이하고 있다. 제2기숙사 호실 내 가구 대부분은 지난 2008년 개관 당시 마련된 것으로 시설 개선의 필요성은 꾸준히 요구돼 왔다. 기존 매트리스의 경우 노후된 탓에 허리에 무리가 가는 상태였다. 의자 또한 낡고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노란 얼룩이 계속해서 묻어나온다는 학생들의 불만도 존재했다.

이에 제2기숙사는 단계적인 시설 정비 계획을 밝혔으며 이번 비품 교

체는 이것의 일환이다. 또 제2기숙사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외벽방수공사도 진행한 바 있다.

제2기숙사 측은 “지난 기사에서 언급했던 시설 관련 개선사항은 예산이 확보되는 한 모두 진행할 예정이며,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어 “기숙사 수입이 늘어나더라도 최대한 건축 운영을 유지하되, 이로 인해 개선된 이익금은 전액 학생들을 위한 시설 개선에 활용될 것을 약속드린다”며 “입사생들이 더 즐겁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문화프로그램 확대, 생활안전 등의 영역에서도 더 나은 거주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제2기숙사 사생 김영미(원자력공학 2021) 씨는 “(기존 제품에 비해) 매트리스가 좀 높아서 아직 어색하긴 하지만 확실히 단단하고 스프링 느낌이 안 나서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다”고 말했다. 김진하(응용물리학 2022) 씨 또한 “교체된 의자와 매트리스 모두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김 씨는 “특히 의자 같은 경우 기존 의자와 달리 쿠션 부분과 바퀴가 없는 제품인 점이 가장 만족스럽다”며 “쿠션 부분에 생길 수 있는 곰팡이 등 위생 관리 문제에서 오는 불쾌감도 적고, 전반적인 안착감이나 안정감 또한 개선됐다”고 전했다.



2023 경희대학교 봄 대동제 모습이다.

(사진=대학주보 DB)

성큼 다가온 대동제

곽다은 기자 kkyu1109@khu.ac.kr

가을 대동제 일정이 확정됐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다.

서울캠 축제의 부제는 ‘MASTER PEACE: 월하’이다. 서울캠 총학 이수빈(경영학 2021) 축제기획단장은 “월하는 9월에 진행되는 만큼 경희인들과 더웠던 여름을 보내주고 싶은 의미를 담았다”고 전했다. 지난 봄 대동제와 동일하게 학생 부스, 노천극장 무대, 경희랜드 세 유형의 행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지난 30일 1일 차 초대 아티스트로 지코, 스테이시, 보이넥스트도어가 공개됐으며 이어 2일 차 초대 아티스트로는 악동뮤지션, 빈지노, 뉴진스가 공개됐다.

국제캠 축제의 부제는 ‘KHU NIVAL’이다. 학업에 지친 학생의 낭만과 동심을 되찾아 주기 위한 놀이공원 컨셉으로 진행된다. 행사는 노천극장 무대, 총학생회 및 학생참여부스, 전시회 세 유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부스 형태는 플리마켓과 체험이며 재학생 대상으로 모집 중이다. 운영 시간은 오후 2시부터 6시,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다.